

‘오월의 꽃 오늘의 빛’...5·18 항쟁 46주기 행사위 출범

국립5·18민주묘지서 출범식

5·18민주화운동 46주기를 기리며 민간 주도 행사를 주관할 ‘제46주년 5·18민중항쟁기념행사위원회’(행사위)가 공식 출범했다.

‘오월의 꽃 오늘의 빛’을 주제로 출범한 행사위는 송고한 5·18 정신을 되새기며 가치 실천에 앞장설 것을 다짐했다.

행사위는 4일 오전 광주 북구 운정동 국립5·18민주묘지와 북구 망월동 5·18구묘역에서 출범식을 열었다.

출범식에는 광주시와 광주시교육청, 5·18공법3단체(유족회·부상자회·공모자회), 5·18기념재단 등 지역 유관 기관들과 시민단체 소속 300여명이 모였다.

출범식은 민주 의 문 앞에서의 민중의례, 인사말, 출범선언문 낭독과 추모탑 앞에서 분향, 5·18구묘역 분향·헌화 순으로 이어졌다.

출범식 참여 단체 관계자들은 46년이 흘렀음에도 여전히 드러나지 않은 5·18 당시의 진상에 대한 규명, 책임자 처벌에 목소리를 높였다. 5·18 정신의 헌법 전문 수록을 재차 강조하기도 했다.

주제 ‘오월의 꽃 오늘의 빛’을 통해 1980년 5월 광주에서의 대동 정신과 12·3 내란 극복 정신을 이어받아 오늘날 공동체



4일 오전 광주 북구 운정동 국립5·18민주묘지에서 제46주년 5·18민중항쟁기념행사위원회 출범식이 열리고 있다.

/뉴스시스

가 처한 위기 상황을 이겨내자고 다짐했다.

행사위는 출범 선언문을 통해 “1980년 광주 공동체가 불의에 저항하며 투쟁한 기억이 2024년 12·3내란을 이겨낼 수 있는 바탕이 됐다”며 “(또한) 1980년에 태어난 이들이 46세의 장년으로 성장, 대한민국 전체 인구의 절반 이상이 5·18을 경험하

지 못한 세대들로 이뤄졌다”고 밝혔다.

이어 “이에 5·18정신 헌법전문 수록은 더 이상 늦출 수 없는 시대적이고 정신사적 과제다. 오월 정신은 기억 속에서 사라지거나 왜곡되지 않고 일상의 생활에서 계승돼야 한다”고 했다.

위경중 상임행사위원장 인사말을 통해 “5·18의 정신이 공간과 세대를 뛰어넘어

민주주의의 가치를 실현하는 데 실질적 가치로 자리 잡아 50년, 100년 넘게 이어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고광완 광주시 행정부시장도 “5·18정신 헌법전문 수록 등 오월정신이 대한민국의 법과 일상에 온전히 뿌리내리는 원년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오권철 기자

학령인구 급감에... 신입생 '0명' 전국 초등학교 210곳

진선미 의원실, 교육부로부터 신입생 현황 제출받아

전남 45곳·경북 38곳·전북 23곳 초등학교 신입생 無

인천·전북·전남·경북·경남은 초중고 모두에 신입생 0명

학령인구가 급감하며 올해 신입생이 한 명도 없는 초등학교가 210곳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3일 교육부가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제출한 ‘신입생 없는 초등학교 현황’ 자료에 따르면

입학 예정자가 ‘0명’인 초등학교는 전국에 210곳에 달한다.

17개 시도 가운데 세종을 제외한 모든 지역에서 신입생이 한 명도 모집하지 못한 초등학교가 발생했다. 전남은 초등학교 45곳(21.4%)이 입학식을 열지 못해 전국에서

가장 많았고, 경북은 38곳(18.1%)으로 뒤를 이었다. 이어 ▲전북 23곳(11.0%) ▲충북 21곳(10.0%) ▲강원·충남 각 20곳(9.5%) ▲경남 18곳(8.6%) 순으로 나타났다.

수도권 역시 예외는 아니었다. 입학 예정자가 전혀 없는 초등학교는 총 10곳으로 인천이 5곳, 경기도가 4곳, 서울이 1곳이었다. 초등학교뿐 아니라 중·고교에서도 신입생을 받지 못한 학교가 있었다. 올해 초등학교 12곳, 고등학교 7곳도 신입생을 한 명도 받지 못했다. 초중고 모든 학교급에

서 입학 예정자가 없는 학교가 있는 지역은 인천, 전북, 전남, 경북, 경남 등 총 5곳이다.

저출생 여파로 매년 입학식을 열지 못하는 학교가 늘어나고 있다. 2024학년도 신입생이 없는 초중고는 총 191곳이었으나, 지난해에는 212곳으로 1년 새 11.0%(21곳) 증가했다. 올해는 총 229곳을 기록하며 전년보다 8.0%(17곳) 늘었다. 특히 초등학교에서의 증가세가 가파르다. 입학 예정자가 0명인 초등학교는 2024학년도에 168명이었으나 지난해 188곳으로 증가했고, 올해는 210곳으로 200명대를 돌파했다.

/뉴스시스

광주 최대 재개발 사업자인 광천동 재개발 정비사업을 놓고 조합과 공사인 현대건설이 공사비, 일반 분양가, 하이엔드 브랜드 적용 문제로 갈등을 빚고 있다.

광천동 재개발 사업은 총 공사비 1조 7660억원이 투입되는 대형 사업으로, 5006가구와 부대복리시설이 들어설 예정이다. 광주 지역 최대 규모 정비사업으로 꼽힌다.

4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현대건설은 지난달 조합에 공문을 보내 기존 하이엔드 브랜드인 ‘디에이치(THH H)’ 대신 새로운

광주 최대 재개발 사업 진통... 현대건설·조합, ‘디에이치’ 갈등

현대건설, 조합에 ‘디에이치’ 대신 새 브랜드 제안

프리미엄 브랜드를 적용하겠다는 방안을 제시했다. 해당 안건을 조합 총회에 상정해 달라고 요청한 상태다.

앞서 현대건설은 지난해 10월 일반분양가를 3.3㎡당 2402만원으로 조정해 줄 것을 조합에 요청했다. 이는 조합이 요구한 3.3㎡당 2670만원보다 낮은 수준이다. 미분양 위험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됐다.

이후 조합과 현대건설은 하이엔드 브랜드 적용 여부와 공사비, 분양가 등을 놓고 협상을 진행했다. 그 결과 ‘디에이치’ 브랜드를 적용하고, 3.3㎡당 기준 공사비를 반영한 총 공사비 2조1500억원에 합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전용 112㎡를 분양받는 조합

원의 추가 부담금은 2억9800만원으로, 기존 대비 1억6700만원가량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조합 측은 수주 당시 약속을 강조하며 하이엔드 브랜드 적용을 요구하고 있다.

조합 관계자는 “현대건설이 수주 당시 하이엔드 브랜드 ‘디에이치’를 적용하기로 했다”며 “추가 부담금이 3억원 이하라면 수용 가능하다는 분위기”라고 말했다. 이어 “조합원들도 새 브랜드인만 받아들이기 어려울 것”이라고 덧붙였다. /뉴스시스



전남학생교육수당 ‘찾아가는 현장 캠페인’

삼산중학교서 신규 지급 대상자 신청 절차 및 활용 방법 안내

전라남도교육청은 3일 삼산중학교를 방문해 ‘전남학생교육수당 찾아가는 현장 캠페인’을 실시했다.

이번 캠페인은 2026학년도부터 학생교육수당 지급 대상에 새롭게 포함되는 중학교 1~2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제도의 취지와 주요 내용을 안내하고, 신청이 필요한 학생들이 교육복지 혜택을 놓치지 않도록 돕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교육청 관계자들은 교내에서 ‘2026학년도 전남학생교육수당 신청 안내장’을 배부하고, 지급 대상과 신청 방법, 유의 사항 등을 학생 눈높이에 맞춰 설명했다. 특히 타 시·도에서 전입한 학생이나 기존 신청 이력이 없는 학생의 경우 별도의 신청 절차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전남학생교육수당은 2024년 3월부터 전국 최초로 시행된 교육복지 사업으로, 학생이 스스로 학습 활동을 계획하고 교육목적에 맞게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이다. 학생의 자기주도적 학습 경험을 확대하고, 책임 있는 소비와 건강한 경제를 형성하는

데 중점을 둔다.

전남교육청은 이번 현장 캠페인을 시작으로 각급 학교 및 교육지원청과 협력해 가정통신문 배부, 학부모 문자 안내, 학교 누리집 및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을 통한 안내를 이어갈 계획이다. 또한 ‘찾아가는 공생의 경제교실’ 운영, 수당 활용 공모전, 수업 연계 교육자료 개발 등을 통해 학생들이 주도적으로 다양한 교육활동에 활용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홍보할 예정이다.

아울러 권역별 전남학부모회연합회와 연계해 2026학년도부터 지급 대상이 초등학교 3학년부터 중학교 2학년까지로 조정되는 사항과 사용 원칙, 신청 절차 등을 체계적으로 안내할 방침이다.

김종만 학령인구정책과장은 “학생교육수당이 학생들의 다양한 교육체험을 실질적으로 지원하는 제도로 학생들이 저마다 꿈을 위해 주도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학교 현장과 긴밀히 소통하며 안내와 지원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염선호 기자

전남교육청, 올해 지방공무원 357명 선발... 행정통합 대비

전남도교육청은 행정통합에 따른 수요를 반영해 올해 지방공무원 357명을 선발한다고 3일 밝혔다.

올해 선발 규모는 최근 5년 내 최대 규모로 지난해보다 120명 이상 증가했다. 전남광주 행정통합에 대한 선제적 대비와 학교 행정업무 개선·지원 등 주요 현안에 따른 수요를 반영했다.

선발 예정 인원은 11개 직렬 357명이다. 교육행정 266명, 전산 13명, 사서 9명, 보건 3명, 식품위생 2명, 기록연구 4명, 공업기계 2명, 공업전기 3명, 조리 24명, 시설관리 15명, 운전 16명 등이다.

교육청은 전남 소재 상업계고 졸업자(예정자 포함) 5명을 교육행정 직렬의 우수인재 수습직원으로 처음 선발한다. 이

들은 내년에 6개월 간 도교육청 소속기관, 학교 등에서 실무 중심 수습근무를 하며 평가 후 공무원으로 정규 임용한다.

이와 함께 특성학교·마이스터고등학교 졸업자(예정자 포함) 3명도 공업전기와 조리 직렬에서 선발한다.

사회적 약자에 대한 공직 진출 기회 확대를 위해 일반 응시생과 별도로 장애인 21명, 저소득층(교육행정) 5명, 국가유공자 4명(조리 2명, 운전 2명)도 채용한다.

김대중 전남교육감은 “이번 지방공무원 선발 확대는 전남광주 행정통합이라는 시대적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첫 걸음”이라며 “우수한 인재들을 적재적소에 배치해 확대된 교육 현장의 요구에 충실히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전민규 기자

(주)통일화물은 정성과 책임으로 늘 변함없이 고객여러분을 모시겠습니다

책임있는 물류문화를 만들어가는데 앞장서는 (주)통일화물
나보다 고객을 먼저 배려하는 아주 특별한 만남
이제 (주)통일화물을 만나보십시오.

(주)통일화물이 힘찬 도약을 시작합니다

- 취급차량 : 1t~12t
- 광고전단지 운송·배포
- 중앙지 및 지방지 신문수송전문
- 일반이사 및 포장이사전문
- 정보지·신문 광고대행
- 기업물류 운송 전문

광주광역시 광산구 우산동 1573-1번지 3층 ☎(062) 956-8500~2 Fax(062) 956-2001